

대행 스님

우리가 한마음으로서 점프해서 뛰는것이 허공을 걷는것이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마음가짐

질문 새해를 맞이하니 또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요즘은 사회 분위기도 암울하고 힘들지만 모든 게 일체유심조라,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변 예전에 6·25 때 모래톱에서요, 총이 막 날아오니깐 다리에 총알을 맞아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막 그냥 뛰는 거 있죠.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마음이 느긋하면 좀 천천히 걸어가게 돼 있고 또 게으르면 그냥 꾀를 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아파도 그냥 '일어나야지. 할 건 해야지.' 하고 마음이 그렇게 돌아갈 때 바로 일어서집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 뭐하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차차분해선 그냥 깔아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난 이제 죽는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죽으니까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인젠 죽었다.' 하는 거요. 이 몸속에서 작용을 해 줘야 할 생명들이 '나는 죽었다.' 하니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들을 해 보세요. 위 공장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관리인 또는 간장 관리인, 소장 관리인, 대장 관리인, 콩팥 관리인, 방광 관리인, 척수·척추 관리인, 이 모두의 관리인들이 다 폭삭 그냥 죽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이, 이건 첫째 앞에 선 선두자가, 마음이 '야, 이건 다 죽겠구나. 인젠 죽었다.' 이러면 그 밑으로 쭐쭐 내려가면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거는 그 주장자에 매여 있으니 그렇게 남이 이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저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내 주장을 세워라 이겁니다. 악하고 선한 거를 다 놔야 된다 이런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갈 때에 정히 급하고 그럴 때, 이 국난에 처해 있을 때도 여러분이 미리미리 이런 걸 알면 '회사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할 때에 벌써 미리미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 인제는 꺾어지고 다 저거 한 연에 이걸 일으켜 세우려니까 힘들죠. 모두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부부지간에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면 싸울 게 뭐 있겠습니까? 부부지간에 만난다 하더라도, 자식의 인연을 짓는다 하는 것도 다 끼리끼리 만나는 인연입니다. 금은 금대로 모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인연이 되고, 시장에 가도 사과는 사과대로 인연이 되고, 배는 배대로 인연이 되고 이렇게 인연이 된 사람들끼리 한 가정이 됐다면 그 가정에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내 탓으로, 각자 내 탓으로 돌리고 둘 아니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 해 줄 수 있고 부드러운 행동 해 줄 수 있다면, 그 집은 아주 화합이 되고 부유하게 늘어 가고 안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을 좁게 쓰는지 말입니다. 꿈을 꾸고도요, 그것도 맘대로 못 해요. 아, 그거 그냥 주인공에다 탁 놓고 '그것도 거기에서 화해서 보이는 거니깐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탁 놓으면 될 거를 '이게 꿈이 나쁘니 무슨 일이 생길까, 어쩔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그게 팔자 운명이에요.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 붙지를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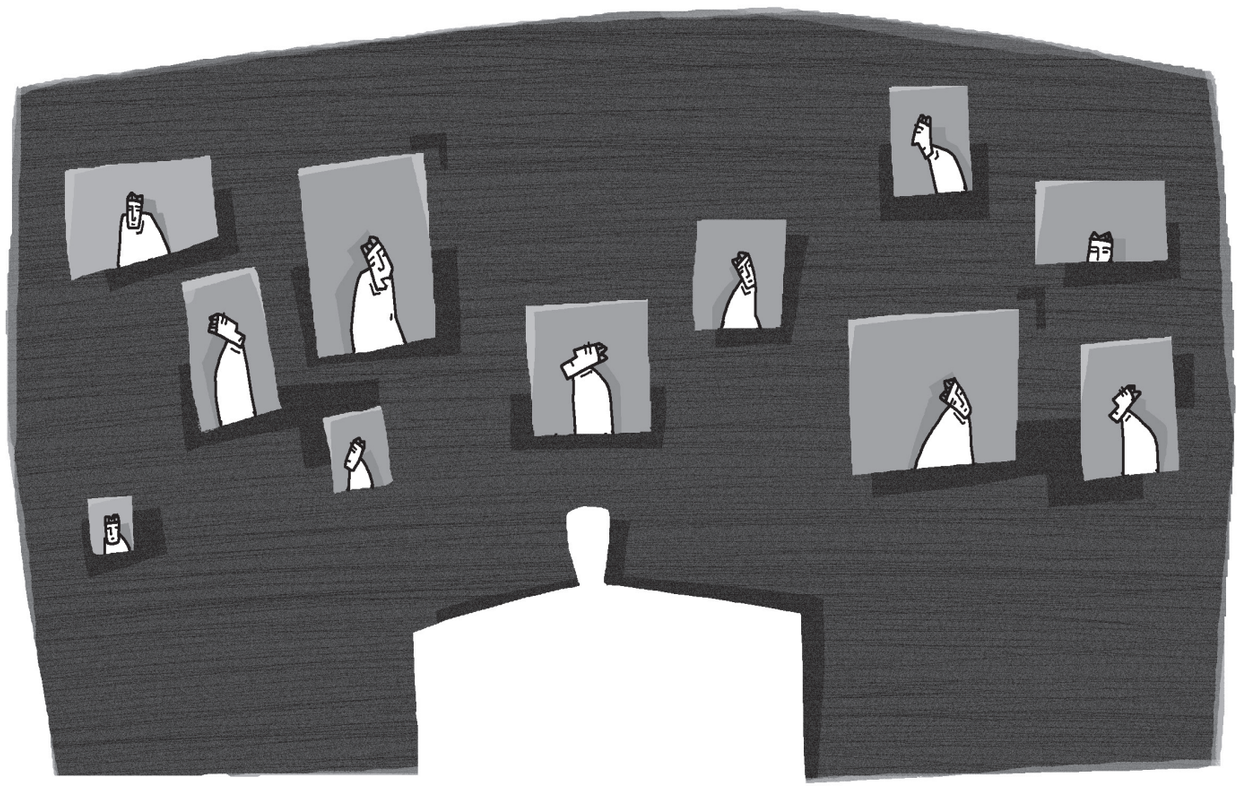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모두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그렇게 부처님의 그 뜻의 길을 좇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방편의 길! 이것이 바로 씨를 여물게 하고, 즉 말하자면 '귀신 방귀씨를 얻어서 귀신 방귀털을 먹여서 잘 길러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귀신 방귀씨라니 그게 뭔가? 귀신 방귀털이라니 뭔가?' 이러죠. 체가 없으니 그것이 다 귀신 방귀털이지 뭡니까? 체가 없는 것이 체가 없는 것을 먹여 키워야 그게 정상적으로 키워지지 체가 있는 것이 체가 없는 거를 키우려면 키워집니까, 그게?

우리가 한마음으로서 점프를 해서 뛰는 것이 허공을 걷는 건데, 이 마음도 그렇게 점프하듯 그냥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가 터지고 불교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함이 없이, 함이 없이 모든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짓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근본 마음자리에다 무조건 맡기고 물러서지 말고 패기 있게 그냥 그렇게 나가시면서 점프하시면요, 그대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인생을 편안하고 보람 있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시공이 없는 도리 알고 싶어요

질문 우리의 실상은 원래 시간과 공간도 없는 자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마음으로 딱 체험을 못 하니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중생이 실눈이라도 좀 뜰 수 있도록 다시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 볼 때 옛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고 옛 산도 없습니다. 우리 근본 자리는 그대로 묵묵히 작용하면서 영원한 그 생명의 실상이 그대로 살아 있기에 '옛거다, 옛것이 아니다' 그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가다 보니까 이 육체로 인하여 옛날이다 지금이다 조상이다 또 그 조상의 자식이다 말들을 이렇게 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이다 재작년이다, 올이다 내후년이다 하고 말들을 해 놓은 거죠.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천차만별로 살아나가자니 문란치 않게 질서를 지켜야 하겠기에 우린 이름을 지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속된 꿈이지마는 지속된 실상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된 삶의 근본을 알고, 그 근본의 도리가 생로병사라고 하고 또는 고집멸도 사제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진화력을 얻어서 탈바꿈을 하고 자꾸 지속된 한 발을 떼어 놔야겠기에, 결국은 진화라는 과정에 의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 과정은 고가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해서 고집멸도라고 말씀을 했겠죠. 사계절이 그대로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